

이영훈 목사(기하성 총회장), 한기총 대표회장 단독 출마

기하성 임원회, 한기총 대표회장 입후보 추대... 사실상 결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지난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루가 지난 13일(수) 오후 6시 기하성 총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 후보 등록을 위한 발전기금 1억을 납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임원회를 열고 총회장 이영훈 목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대를 결의해 사실상 출마를 결정지었다.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등록은 16일 마감을 며칠 앞두고 전격 이루어졌으며, 16일 오후 사실상 단독후보로 결정된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개혁과 한교연과의 연합을 위하고, 한국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나섰다.

기하성은 '한기총 탈퇴' 철학 '한기총 개혁' 위해 선화해

기하성은 지난 5월 제63차 정기총회에서 한기총 탈퇴의 건을 다룬 바 있다. 당시 결의내용은 한기총 탈퇴를 고려하되, 오는 10월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기하성은 만약 한기총이 한교연과 연합을 결의하거나, 연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시 한기총 탈퇴를 철저히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한기총이 한교연과의 연합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자, 지난 8월 임원회에서 한기총 탈퇴 안건을 재론하게 되었다.

한기총 탈퇴론이 철회된 것은 기하성 부총회장 강영선 목사(현 한기총 부회장)가 한기총 개혁론을 주장했다. 강 목사는 기하성이 한기총 탈퇴를 신중하게 다루는 이유에 대해, 한국 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자는 한기총의 창립 목적과 조용기 목사 등 기하성 선배 목회자들이 창립에 기

여한 역사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영선 목사는 한기총을 탈퇴하기보다는 한기총에 들어가 개혁하자는 의견을 냈고, 임원들도 동의해 탈퇴에서 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이에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를 수락했으며, 한기총 개혁과 한기총과 한교연 연합에 대해 한국교회는 주목하고 있다.

기하성교단 한 관계자는 "이영훈 목사는 성령운동의 선구자일 뿐 아니라, 4대째 장로교 목회자 집안 출신으로 순복음교단 장로교단 성결교단 등의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으며, 또 교회회 회장도 역임하여 진보교단에서도 우호적인 분이다"면서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다면 한국 교회 연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한기총 개혁을 위해서도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단독후보로 결정된 이영훈



목사는 오는 28일 한기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울러 9월 2일 임시총회에서 단독후보로 확정된 이영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어 오는 9월 16일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갖게 될 예정이다.

김정은 추모화환 어르고 뺨 때리기

하루걸러 한두 차례 씩 포사격과 로켓발사 불이에 흠뻑 빠져 있던 6.25남침전범집단 천안함폭침테러 범 김정은이 느닷없이 김대중 재단에 김대중 5주기 추모화환을 받아가려는 통지를 보내자 박지원 임동원 김홍업 등 관계자들이 17일 개성으로 달려가 아태위원장 자격으로 나온 북과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을 만났다.

김정은은 김양건을 보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한다고 적은 화환을 전달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노력과 공적을 잊지 않을 것이며 남은 업적은 후세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유가족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이 뜻을 이어 평화 사업에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조전문(弔電文)을 남겼다. 꽃을 받아가지고 돌아 온 박지원은 약 1시간가량 가진 환담에서 김양건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합동훈련에 대한 불만 ▲핵 폐기를 요구한 박 대통령 8.15경축사에 민감 반응 ▲전제조건 없는 (6.15)실천 등을 요구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은은 김대중 5주기 추모화환을 보내놓고 북괴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책동은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 어르고 뺨 때리기 식의 치졸한 양면작전을 펼쳤다. 북괴군총참모부성명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훈련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천명한다."면서 "침략의 본거지가 불바다가 된다."고 열려했다. 또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김정은이 추모화환전달을 구실로 박지원 임동원 김홍업 등 아태재단(김대중재단) 관계자를 상대로 6.15관련 과업을 총화(總

和)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독려하는 한 편, 남한 당국에게, 南 아태평화재단(김대중평화재단)과 北 아태평화위원회 간 6.15 통일전선공작 프레임에 복원하는 한편, 우리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선 안 될 점은 김정은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아태재단(김대중재단) 관계자를 초치, 김대중(김정일?)의 유지를 받들어 "민족화해와 단합, 평화사업(퍼주기?)에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사실이며, 김양건과 박지원, 김양건과 임동원 사이에 알듯 모를 듯 하는 교감과 꾀스랄은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남남갈등 조장,

6.15복원

통일전선공작

치졸한 양면술책

박지원 임동원 김홍업, 김대중재단 관계자들은 화환전달을 전후하여 북과 교신 내용, 김양건 접촉 시 생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사적인 교감에 이르기까지 전모를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와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국민과 정부는 북괴 김정은의 치졸한 양면작전과 당국 자기피 속내를 간파, 6.15복원 통일전선공작에 더 이상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김정은의 요구를 직접전달 받고 돌아온 박지원과 김대중재단인사 등 야권의 행보를 예의 주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경목총회, 양평경찰서 위문 격려해

한국경목총회(이하-한경총) 총회장 김진수 목사 외 임원 일행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강변길 42 양평경찰서를 방문하고 총경 김창식 서장을 비롯 그 외 직원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한경총 총회장 김진수 목사는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보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양평경찰서 서장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범죄 없는 양평과 항상 모범되고 치안유지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전 직원의 건

강을 위해 기도하고 따라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위대한 힘과 능력 있는 경찰이 되고 다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경찰관이 되어 달라며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총경 김창식 서장은 전국 13만 경찰과 60만 가족들의 복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국경목총회 김진수 총회장과 동석해 주신 임원여러분을 환영하며 인사하고 많은 덕담을 나누었다.

이날 김창식 서장은 남달리 신앙이 돈독한 크리스천이면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치안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김 서장은 서리집사로 28년째 봉사하고 있으며 부임해서 가는 경찰서마다 경목위원회를 활성화시켰으며 경찰서 신우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왔다.

또한 양평경찰서 신우회는 매주 수요일 관내 목회자를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매월 한차례 교회를 순회하면서 양평

지역 관내 목회자들이 참석하거문데 경찰서 신우회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러한 경목활동으로 경찰신우회가 더욱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창식 서장은 관내에 창연힐링마을 수련원을 유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경찰서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경찰서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성총회 제99회기 공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1절)

○ 2015. 새롭게 도약하는 합동보수, 연합하여 비상하는 총회로!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학교교회



서재식 목사
동성교회



허봉도 목사
서광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조명남 목사
시온교회

『다짐』

1. 하나님 마음에 드는 총회로 우뚝 서자!
2. 회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총회로!
3. 상호간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미덕을 갖는 총회
4. 신학과 정치가 같은 회원을 영입하는데 힘쓰자

- 일정 : 2014년 9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 시무)
- 협찬 :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목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02)854-1326, (FAX) 02)496-0181, H.P 010-7474-3173

지도자협, 8.15 제69주년 기념예배

인류의 평화와 민족통일 기원, 일본 아베정권 회개 촉구도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신신록 목사, 상임총무=김탁기 목사)는 광복69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3일 여전도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기원했다.

이날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한국 영도인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문제 사과와 보상 즉각 시행, 일본

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내용이 담긴 8.15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또한 이 성명서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등 평화통일에 앞서 동질성 회복을 위한 우리정부의 제안에 적극 참여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잘라내고, 관피아를 적결하는 등 국가혁신 작업을 강력히 추진, 살기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동행 의회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난해 지고,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공공의성을 회복,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도 촉구했다.

또한 이날 대표회장 신신록 목사는 인사에서 △목회자들이 비자금

형성하는 등 엉망진창으로 변한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병들고 타락한 한국교회의 재건을 위해 기도해 줄 것 △국론이 하나되어 좌파종북 세력을 단호히 물리치고, 국력 안보를 든든히 만들어 갈 것 △인류의 평화와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향한 기도행진을 벌여나자며 간절히 호소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독도수호와 일본 침탈 저지, 북한 핵 포기과 도발방지, 국론통일과 나라의 안정, 한국교회 개혁과 본질회복 등을 위해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예배는 최병두 목사의 사회로 김재권 목사의 기도, 최윤권 목사의 '나 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이란 제목의 설교, 이태훈의원의 기립사, 한창영목사의 메시지 채택, 김탁기 목사의 광고

박치덕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와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최윤권 목사의 설교의 요지는 "일제말 일부 한국교회는 일본 신사참배 강요를 피하기 위해 교회당 앞에 '오늘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써 붙였던 일이 생긴다. 일본의 패망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십계명중 1, 2계명을 어기고, 천왕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이다"면서, "한국교회도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목회자들이 물신주의에 빠지면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교과를 초월해서 초대교회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나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다"고 역설했다.

제 69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연합회 이사장 양정섭목사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목사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연합회 대표회장 박형렬목사 3개 단체가 연합하여 8월 11일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대표자 150여명이 모여 8.15 광복절 69주년 연합예배를 드렸다.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상임부총재인 노종관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예배는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가 기도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부흥총회 부

총회장 서경숙 목사가 역대하 34장 29-33절을 봉독, 개혁종창단의 찬양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연합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요시아왕의 애곡"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양 이사장은 "우리나라 8.15 광복절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제국주의 36동안 피맺힌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며 나라 잃고 이틀까지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마치 종처럼 끌려 다니며 투옥되고 매 맞고 억울하게 죽었고, 또한 소녀들은 끌려다가 저들의 위안부를 삼았으며, 게다

가 역사를 왜곡하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트집을 쓰고 망언을 일삼는다고 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다. 그러므로 진정 일본이 회개치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분명히 망한다. 미국은 일본을 도와서는 안 된다. 진주만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나라 세계에 으뜸가며 복음의 수출국이 되는 축복받은 나라와 민족이 되시기를 소원한다.

우리는 분단된 조국으로 공산주의를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흥 발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국가관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나라의 교회를 돕고 성직자를 존경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의 기초를 삼고 말씀위에 서 있어야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한다고 요시아 왕을 들어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에는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가 기도를, 대통령과 온 국민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부총회장 정광용 목사가 기도를,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기도총회 총회장 김성한 목사가 기도를, 일본회개촉구와 우리나라 독도지킴이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예배총회 총무 정현 목사가 기도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의 인사에 이어 사회자 노종관 목사가 만세삼창을 하고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이사장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A-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장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분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i@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회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 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권하시길 빕니다.

주후 2014년 8월 1일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사도영성 신학원 학생모집

이 시대의 사명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사도영성 신학원은 수시로 접수 중...

개강일 : 9월 4일 오후 7시

- ◎ 학장 : 홍요한 박사
- ◎ 교무과장 : 양미상 목사, 교학처장 : 홍성의 목사
- ◎ 선교회장 : 선년규 장로
- ◎ 선교회 총무 : 김동현 간사 : 인현숙



학장 홍요한 박사

1. 학교비전 / 교과목 소개
2. 교수소개
- 학장 : 홍요한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 미국에설립된대학원 목회학 박사 / 호주시드니 알파크로시스템학, 미국 University of Puritan 한국학)
- 교수
- 지왕철 목사 (미국페시레이유니버시티 목회학 박사/한기보형 상임교문)
- 김정봉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미국CLARMONT대학원목회학 박사)
- 이효은 목사 (한양대학 / 총신대학원 석사, 박사)
- 박경혜 교수 (안양대학원 / 미국하와이 인터네셔널대학원 기독교상담학박사)
- 허 식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석사 / 한국경목총회 장)
- 이갑표 목사 (한영신학대학원 / 대신대학원 석사)
- 임요한 목사 (안양신학대학원 / 건리수호국기독교회 대표 / 예수재단 대표)
- 임해숙 목사 (한국농화교역자총회 중경총회장)
- 박용수 목사 (연세대학원 석사 / ezob.org 이장원장 / 주성농교회회담원)
- 양미상 목사 (고려대학원 / 본교 교무과장)
- 정기남 목사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대표이사)
- 홍석익 목사 ((미)순전한나드사역연구원 학생처장)

- 사도들의 영성 특징
1.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다.
 2.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3.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다.
 4.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다.
 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 사도영성신학원을 개원하면서 평신도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첫 사랑을 살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있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번지 뒤 삼부건실 10층
- 전 철 : 역삼역 8번 출구 150m 르네상스호텔 뒤 삼부건실빌딩 10층
- 전 화 : 학장 010)7585-1955, 02)2625-0982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병성 목사



157-881 서울시 강서구 확곡1동
348-21 호용B/D 6층

☎02)2608-2190, Fax 02)2608-2191

한보협, 69주년 8.15 기념예배 및 세미나 열어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 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소망교회(김정민 목사)에서 지난 14일 오후 1시~4시까지 사)한국보수교단협의회 제69주년 8.15 기념예배를 드린 후 임바울 목사(예장보수 합동연합 총회장)를 감사로 전도 세미나를 가졌다.

한보협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 김길성 목사(한국기독교영성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기도, 송성영 목사(예장예신총회 총무)가 성경봉독(출 12:13~14절), 지왕철 목사(한보협 상임교도)는 “유월절 절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지왕철牧사는 설교를 통해 “광복절 기념행사는 우리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인 것처럼 믿는 자들은 영적인 광복절이 있음을 잊지 말자, 8월 15일은 육적인 해방이지만, 영적인 해방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광복절인 유월절 절기로 기념하는 생각을 갖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1년 동안에 7곱번의 절기 즉 축제를 하라고 명령하셨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시작하신 의미가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축제의 절기이다. 또한 이 민족의 8.15의 기쁨도 잠시뿐인데 사상이 하나 되지 못하여 분란과 분쟁으로 인하여 동족이 동족을 살상하는 민족의 한 많은 6.25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다. 민족의 사상이 하나 되지 못했다. 결국 분쟁으로 인하여 분단된 나라가 되었던 것은 세계사에 비극이다.

육적인 비극이 있듯이 기독교의 세계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구원을 받았는데도 신학과 교리로 인해 생명의 진리가 하나 되지 못하여 수천 개의 교파를 조성하여 서로 비방하며 분쟁하고, 또한 그들은 성경의 잣대로 자기들의 교리의 잣대로 난도질하여 이단을 만들어 영적인 살생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모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행4:12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이 어떠한가? WCC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 단체이다. 이에 한국교회에서 내노라고 하는 교파와 수많은 목사를 2/3가 동참하고 동정하고 있다. 이들 이단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를 이단이라고 살생하고 있는가?...

민족과 민족을 살생하듯이 오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영적인 구원인 해방을 얻은 우리는 교리라는 잣대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이단으로 살생되어 가고 있다.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단은 없어져야 하겠지만, 교리의 잣대로 이단을 이 하나 되지 못하여 분란과 분쟁으로 인하여 동족이 동족을 살상하는 민족의 한 많은 6.25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다. 민족의 사상이 하나 되지 못했다. 결국 분쟁으로 인하여 분단된 나라가 되었던 것은 세계사에 비극이다.

이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뿌리를 흔들고 교회를 종교로 전락시켜 생명의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이 한국교단의 보수신앙을 위해서 지키겠다고 하는 이단 감별 사들도 거기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는 개(犬)가 되고 말았다.

육적인 8.15 해방을 거울삼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한국교회를 좀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이 땅위에 보수교단협의회를 세우고 동지 여러분을 이 땅에 불러 주신 것도 이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불러주셨는데도 우리도 역시 방어가 되고 있다.

현재 각 협의회와 단체들이 영망진창이다. 그래도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만이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우리는 보수가 무엇이

며 보수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교리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교리를 동일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동쳐야 한다.

또한 무교절은 유월절 후 즉시 지키는 절기이다. 무교절은 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심으로 삼는 것이다. 무교절을 지켜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심령의 떡으로 취하고 그 취한 것을 내 평생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합한 목회자로 변신을 갖자.

아울러 초실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한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다. 그리고 흠 없고 교회를 종교로 전락시켜 생명의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이 한국교단의 보수신앙을 위해서 지키겠다고 하는 이단 감별 사들도 거기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는 개(犬)가 되고 말았다.

지금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들을 보면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부끄러운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외형과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본체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정리를 한다면 유월절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무교절을 즉시 행하고 누룩이 없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양식을 취하여 참된 삶을 가져야 한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번제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하늘로부터 성령을 쏟아부어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결과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 시대의 부름 받은 자의 자격이 없다.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은 나팔을 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선포하는 나팔을 불라는 것이다. 나팔을 부는데 교회의 나팔도 아니다. 전통의 나팔도 아니다. 신학의 나팔도 아니다. 생명의 나팔을 불라는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은 오순절에 의해서 속죄에 대한 나팔을 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8.15해방을 맞이해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월절 절기를 시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계시록에 영원한 천국성전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보수교단의 주의 종들이 되자며 역설했다.

이어 특별기도에서 ① 국가 안정과 통일을 주제로 이규상 목사(예장 개혁총회 증경총회장), ② 한보협 발전과 한국교계를 주제로 사금열 목사(한보협 법인이사)가 나섰다. 연이어 오승겸 목사(기독교한국성결회 총무)가 헌금기도를, 민정식 목사(한보협 사무총장)가 광고를,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전도세미나는 이상원 목사(한보협 서기)의 사회로 시작되어 강사로 나선 임바울 목사(보수합동연합 총회장)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란 주제로 강의하고, 박동호 목사(한보협 상임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4차 이사회 열고 기도회 가져

현재 JTNTV 인터넷 방송을 클릭한 총계가 1천 28만이 넘어섰다는 보고

JTNTV방송 및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지난 8월 8일 오전 11시 예복교회(사장 소진우 목사) 중 성전에서 전국 지사장 및 이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4차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회의 월례회를 가진 후 기도회를 가졌다.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의 인도로 상임이사 서영웅 목사(퓨리탄 한국총회장)의 기도, 인천지사장 광영민 목사의 성경봉독(행20:2~24절), 꾸미오리물찬양단과 박사라 권사의 특별무대가 이루어졌으며, 김진수 목사(한국경목총회 총회장)는 “바울의 사명감”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정중환 목사(문화예술부 기자 및 공동회장)가 봉헌찬양을, 이기학 목사(포항지사장)가 봉헌기도를,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당회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가 내빈들과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사무국장의 광고가 있었다.

2부 특별기도회에서



① 신문본사와 지사를 위하여, 임요한 목사(문화부 기자), ② 문서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김부경 목사(이사 및 공동회장), ③ 해외 30개국 선교사 및 전국 24개 지사와 미국 미주 타이즈와 국내 제후사를 위하여 배정희 목사(이사 및 공동회장), 국가의 안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여바울 목사(이사 및 실무회장), 사장 소진우 목사가 시무하는 예복교회를 위하여 주은총 목사(운영이사 및 실무회장), 본지와 제휴한 한국경찰청 경목총회와 13만 경찰과 60만 경찰가족구원을 위하여 한국경목총회 사무총장 홍창표 목사(상임이사 / 부총재) 등이 각

기도한 후 이규필 목사(부이사장/부총재 합동보수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3부 이사회는 자문 박한규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되었으며, 본지 경영을 위하여 보고가 있는 후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 추대하고, 언론부흥사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를 가졌으며, 2014년 10월 24일 창사 9년을 감사예배 및 행사를 위하여 의논을 갖고 박양우 목사(대전중부권 지사장)의 기도회 회의를 마쳤다.

한편 www.jtntv.kr (JTNTV방송)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총 클릭 수가 1천 20만이 넘어섰다고 보고 했다.



JTNTV방송이 8월의 추천 작품으로 게재했습니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작품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2014년도 목표 : “어두움에 빛이 비치라”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6시
새벽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 낮 11시
금요일아침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춧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2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노회 2014 하계수련회 개최

■ 주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전하는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서기



박민규 목사
백호살롬교회

회의록서기



박명자 목사
도원생수교회

회계



유윤주 목사
조예교전교회



- 노회 수련회 특별강사 : 장한국 목사
- 일정 : 주후 2014년 8월 25일(월)~27일(수) / 2박3일
- 전화 : 033) 243-5340 노회서기 : 010-9621-9627
- 회비 : 개인별 5만원
- 교통편 : 승합차 : 대기 8월25일(월) 오전 10시까지 주사랑교회(노회장 장한국 목사 사무)에 집결

- 장소 : 강원숲체원(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 46-1)
- 대상 : 노회원 부부동반 및 교단 목회자
- 복장 및 휴대품 : 간편복, 세면도구, 성경/찬송, 필기구

승용차 : 서울에서 경춘 고속도로를 경유, 춘천 시내를 지나 화천방면으로 5번국도로 직진 춘천댐이 나옴. 춘천댐에서 화천방향 2.5km를 지나 오월교(다리)를 건너지 않고 좌측에 옛날 다리를 지나 오월리 방면으로 강을 끼고 1.5km 직진하여 아름다운모텔 앞에(강원숲체원안내표지판 있음)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1km 직진하면 됩니다.

대한노회 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호5층)

홈페이지 : http://jlcn.kr ☎ : 031) 424-7612, H.P 010-4436-7060

『이단사이비집단의 무차별적 거액소송에 성명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성명서 발표

경찰과 검찰 등 정부 관계 부처는 반사회적, 이단사이비집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국법질서를 유지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 이단집단들이 언론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교회 세계선교협회가 4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추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거액의 폭탄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이단집단에서는 국민일보 뿐만 아니라 CBS에도 거액의 폭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여러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보도를 한다. 때로는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도의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타종교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언론기관은 보도의 자유가 있는 반면, 각 종교의 내부적인 상황과 교리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도하여 국민 각자가 종교를 선택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건전한 종교활동이 사회나 국가 발전의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지, 도덕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반사회적 종교 집단까지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정부 관계 부처는 그 종교가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등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규제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이나 사이비집단 뿐만 아니라 아예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한 신흥종교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통 기독교신앙의 교회인지, 아니면 정통기독교에서 이탈한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이다. 만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을 앉혀놓고 숭배한다면 그것은 정통기독교에서 이탈한 것이고, 이단일 뿐만 아니라 사이비성 신흥종교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집단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집단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을지라도, 기독교적 예배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통기독교가 아니다. 이단일뿐만 아니라 신흥종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통기독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집단은 정통신앙에서 이탈한 것이다. 더욱이 자신들의 집단의 지도자를 재림주로 숭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어떤 것으로 죄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정통기독교에서 이탈한 집단이다.

정통기독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과도하게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종말의 시기를 발표하는 집단은 정통 기독교에서 이탈한 집단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날짜를 제시하고 신도들을 현혹하고, 그로 인해 학업도 중단시키고, 재산도 헌납하게 했다가 자신들이 주장했던 종말의 시기가 틀렸던 집단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종교성이 강해서 신흥종교집단들이 우리 국민을 현혹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

국민일보의 신천지집단의 실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장길자를 어머니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교회 세계선교협회에도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국민들과 독자들이 이들 집단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 권리 차원과 공익적인 차원에 보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국민일보가 보도하는 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행태가 아니라, 그 집단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하는 중에 취재원의 제보내용이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맡겨야 할 사안이지, 곧바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연합기관과 소속 교단들과 단체들로 구성되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공약을 받아낸 바 있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이단사이비 신흥종교 집단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선량한 국민을 속세무민하고 이들 집단에서 피해를 입고 탈퇴한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상대로 이단사이비 신흥종교집단의 실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익 차원에서 실상을 언론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탈법, 불법, 피해사례들이 발생한 경우는 이들 집단의 건축물 인허가 불허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국 교회는 복음 실은 국민일보를 비롯한 교계 언론에 대한 이단사이비집단의 무차별적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의 소송제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처하고 보호하여 한국기독교언론들이 어떤 압력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리 수호를 위해, 한국 교회 신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 사회의 건 강성을 지키기 위한 정론보도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2014년 8월 18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삼환 목사, 부총재 이영훈 목사

이석기 감옥에서 챙기는 세비 6억4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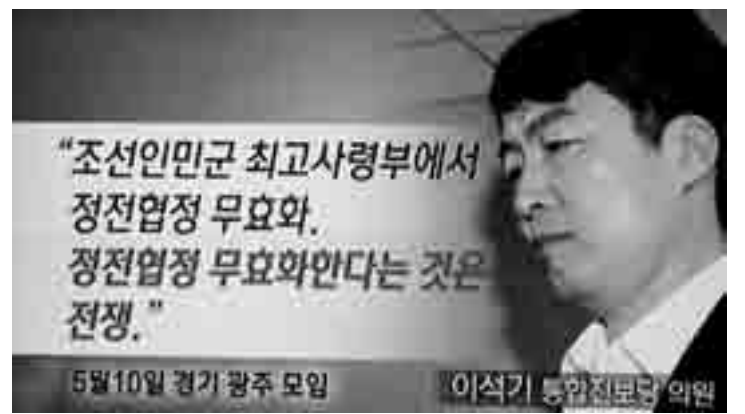
내란음모 죄로 해산돼야 할 통진당에 160여억원 지급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해산심판을 청구한 통진당에 국고 보조금 지급 말라!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한 통진당에 계속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2011년 통진당이 창당 된 이후 국가에서 국고 보조금을 160여억원이나 지급하여 왔으니, 지난 15일 자초선일보에 의하면 해산심판이 청구된 이후에도 20억 7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고, 4분기에 또 7억원을 지급할 예정 이란다. 정부에서 헌법 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활동 정치 가져분을 신청했는데도 묵살되고 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정당활동 정치 가져분을 3013년 11월 5일 해산 심판 청구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다. 그런데 헌법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지만 정당활동을 정치해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한다며, 현재까지 통진당의 정당활동 금지 가져분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현재의 직무유기로 국민들의 혈세가 통진당에 몰려만 보조금으로 20억 7000만원이 지급되었다. 통진당은 올해 6·4 지방선거 때도 선거 보조금으로 32억원을 챙기는 등 후보자들이 출마한 사회를 하고도 선거 보조금은 받아 챙기는 '먹튀' 짓을 하는데... 지난 민노당 창당 때부터 300여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종북정당인 통진당에 지급했다. 헌법 재판관들은 통진당의 해산 심판도 못하고, 정당활동 정치 가져분 신청을 외면하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겐 연간 6억 4000만원의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 국회의원인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어 2심에서까지 9년형의 선고를 받았는데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국민의 혈세를 배달 5400여만원씩 지급 받고



있더니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보다 이법을 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정당 해산 심판이 결정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선거입후보자가 중간에 사퇴하면 즉시 선거보조금도 환수하고, 의원이 1심에서만 형이 확정되는 순간 의원에게 지급되던 모든 것을 중단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법을 만들기에는 올인하지 않고 국민들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이나 만들려고 하는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무능국회를 두지 말고 무능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다루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세상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지가 얼마인데 박근혜 정부 끝나면 그때가서 처리할 것인지 헌법재판관들의 소위가 의심스럽다.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통진당의 정당활동 정치 가져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혈세를 법을 이용하여 횡령 하는 짓을 하는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왜 정치시키지 못해서 국민의 혈세를 일년에 27여억원 이상씩 횡령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선거 때는 더 많은 돈을 횡령하게 하는 것인지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반정부 운동만 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의원이 소속된 통진당을 왜 헌법재판소는 정당활동

정치 가져분 결정도 못하고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해산심판을 청구했는데도 결정을 못하고 직무유기만 하는 행위가 무엇이란 말인가?

내란선동 법인 이석기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매달 5400여만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드시게 하고, 종북정당에게 국민의 혈세를 분기마다 보조금으로 6억9000만원 씩 지급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국회는 속히 정당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먼저 정당활동 정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통진당처럼 정부에서 해산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말 국민들은 화가 나서 국회를 해산하기를 바란다. 종북정당 노릇만 하면서 반정부 운동만 하고, 내란선동을 하는 정당에게 국민의 혈세를 300여억원을 정부에서 정당 보조금으로 지급했더니 어찌 화가 안 나겠는가?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바로 백해무익한 종북정당에게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당에게 국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게 하고, 의원이 일심에서 무슨 죄로든 징역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모든 세비와 대우를 박탈하는 법을 먼저 만들기를 바란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gho

· 부 목 사 : 이주홍
· 협력선교사: 김종록, 이두원, 차영호, 권오성
· 장 로 : 임청수,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심방전도사: 원명숙
· 교육전도사: 이민규, 이윤경
· 전 도 사 : 양승숙
· 성가 대장: 심재현 · 지 휘: 조은총, 왕소정
· 반 주: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 예배 오후 11:00	학생부 예배 (토)오후 4:30
주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오전 4:30	주일학교 예배 주일오후 1:00	청년부예배 (토)오후 7:00

가보고 싶은 영광교회, 만나보고 싶은 조강수 목사... 추천합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LA 한인사회, 다양한 광복절 기념행사

69주년 8.15 광복절 경축 기념식

8월 15일 광복 69주년을 맞아 남가주 한인사회에서도 다양한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LA 한인회 관에서는 한인회와 총영사관, 미주평통, 미주광복회, 남가주기독교협의회, 미주3.1여성동지회,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등이 공동으로 광복절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LA 한인회 합창단의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 및 김현명 LA 총영사의 대통령 경축사 대독,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의 축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인 미주광복회 랄프 안 교문의 진행으로 만세삼창 등의 식순으로 거행됐다.

김현명 LA 총영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를 대독한 뒤 "69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6주년을 맞아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한인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오히려 양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주는 일이 생겨났으며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인식을 올바르게 할 것을 촉구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도 "일제의 잔악한 전쟁범죄와 잔재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며 광복 69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인회관의 합동 기념식 외에도 한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LA지부가 개최하는 광복절 기념행사가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고, 우정의 종보존위원회는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

에서 33번의 타종식을 갖는 등 남가주 곳곳에 한인들이 모여 만세삼창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미주타임즈 다니엘 방 기자

LA 원하트 미니스트리, 문화선교사 '피터 박 목사'

"원하트 팀과 파킹랏 콘서트의 열정적인 무대"

LA에 찬양/문화사역을 통해 새로운 크리스천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운동이 피터 박 목사의 원하트 미니스트리(이하 원하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원하트는 음반기획 및 제작, 공연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선교단체다.

특히 최근에 성황리에 열린 CCM루키 오디션 콘서트는 원하트가 펼쳐나가는 찬양사역의 일환이며, 그 외에 HYM 집회 음향 시스템 지원과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CCM페스티벌의 출연자 및 시스템 지원 등의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주 토요일 밤에는 LA 한인타운의 파킹랏 콘서트인 더텐트에 CCM루키 오디션 출연진 중심의 소속팀을 보내 열띤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원하트 기획사가 생긴 역사에 비해 엄청난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원하트 대표인 피터 박 목사는 15년 이상의 라이브/레코딩 엔지니어로 활동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주한인에게는 취약한 분야로 지적되었던 크리스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 20대 초반에는 복음성가 및 락그룹에서 활동했으며, 20대 후반부터는 음반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찬양사역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남가주에 처음 온 박 목사의 눈에 비친 미국의 기독교 문화는 매우 낙후된 모습이었다며 현재도 남가주 지역은 많은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문화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사역에 대한 개념이



"다음에는 철야음악집회를 파킹랏에서 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과연 어떤 집회가 될까하는 기대와 함께 피터박 목사의 기획 능력과 더불어 그의 음악사역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에 다시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원하트 미니스트리에서 가장 정성을 쏟는 부분 역시 CCM 찬양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원하트의 CCM 루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전문 찬양사역자를 발굴할 것이라며, 지역교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랐다. 기획사에서 관리하는 음악인의 진로에 관해서는 찬양사역자의 길이 워낙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는 본인들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연습생 기간동안 정말 찬양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서로가 확인하고 결정이 되면, 원하트가 최대한의 서포트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전문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남가주로는 시장의 한계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박정현, 소향, 김브라이언처럼 찬양사역자로 데뷔하여 대중가요의 길로 가고자 하면 한국의 대중음악 전문기획사에 연결시키는 작업까지도 할 계획을 밝혔다.

피터 박 목사는 2002년 한국 순복음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8년간의 미국 경험속에서 원하트 미니스트리를 창단하고 미국내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남가주는 물론 미주지역의 한인교회들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LA에서 미주타임즈 다니엘 방 기자

故 배춘희 할머니, 미주에서도 추모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추모 행사 열려

지난 8일 타계한 고 배춘희(91) 할머니 추모 분향소가 12일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 마련됐다.

가주한미포럼(대표 윤석원)은 12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공원(222 E Harvard St., Glendale)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고 배춘희 할머니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가주한미포럼 황근간사가 배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찾아온 조문객을 맞았다.

이날 분향소에는 3·1여성동지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임원들과, LA 흥사단의 보이스카웃 단장, 박상원 목사(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 등이 찾아와 분향하고 기도드렸다.



이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맡은 박상원 목사는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선조들의 고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손만대 이어지는 귀감이 되기를, 또 제국주의로 인한 전쟁

과 식민지와 수탈과 억압 등의 아픔을 그 어느 나라도 다시는 겪지 않기를 기원했다.

황간사에 따르면 고 배춘희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음악과 그림

등 예술과 언어감각이 뛰어나 중국어 일본 등 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했으며, 해방 후에는 일본에서 가수 생활을 하기도 해, 별명이 "예술가"였다고 한다.

故 배춘희 할머니는 1942년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에 끌려가 중국 만주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해방 후 귀국하였으나 국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본으로 건너가셨지만 거기서도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는 1980년 다시 귀국, 199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며, 1997년 위안부 할머니들이 머무는 나눔의 집에 들어온 뒤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며, 3년 전부터 병상에서 고생하다가 별세했다.

LA에서 조영숙 기자

채루빔 선교찬양단 창단 연주회

채루빔 선교찬양단 창단 연주회 열린다...

채루빔 합창단은 이번 9월 18일 (목) 오후 7시30분 장천 아트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를 주제로 창단 연주회를 연다. '채루빔'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인 '그림'을

의미하며,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 음악원 출신의 소프라노 박유미 단장의 지도와 함께 전원 성악 전공의 솔리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채루빔 찬양단의 박유미 단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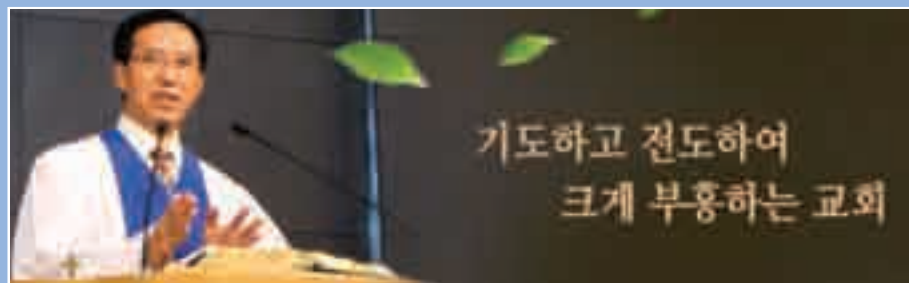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좌절하신 왕좌를 만들어 드리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통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연주회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 선교에 귀중한 씨앗이 되고 싶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부으심' 등으로 익숙한 신상우 작곡가의 곡들을 작곡자가 직접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고, 지휘 노하나, 소프라노 김경란, 메조 소프라노 조미경, 테너 김주완, 바리톤 공병우 등 활발히 활동 중인 실력있는 성악가들의 특별 출연으로 더욱 완성도 있는 음악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연주가 열리는 장천 아트홀은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해 있으며 선교 차원에서 열리는 창단 연주회인 만큼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은 CK ACCOMPANY(대표:조미경)에서 하며, 주최는 순복음영광교회(담임:이희훈 목사)이다.

문의 : 단장 박유미 / 010-2054-6406(ilmondo @hanmai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광교회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김진수 목사
강도사: 서재형 목사
심방전도사: 김양원
교육전도사: 서대환
시무장로
장로: 문용택, 김형구, 윤규봉
정의영, 박광우, 정명훈
임현달, 문장길, 백관기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 예배 새벽 5:00



담임 김진수 목사
(한국경찰청 경목총회장)



(130-020) 서울 동대문구 전동동 2-59 대광교회 TEL : 02)2248-1190

COPYRIGHT(C) 대광교회 ALL RIGHTS RESERVED. Provid by 교회사랑넷

표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지 66(화정동 5동) 전철(3호선 화정역 1번 출구)
TEL 031-974-7091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영복섬전인치유센터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업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영복섬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애준비중 고침
- ☆ 김소영: 류머티즘관절 병행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 간증
- ☆ 강복희: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예 배 시 간 안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현동)
☎ 053-752-8238 010-8537-8291

<http://www.mokpojuan.com>

섬기는 분들

- 부 목 사: 모정현 신길현 모성은
-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김이경
안운기 김진희
- 협 동 목 사: 장장화(은퇴) 서기옥
- 전 도 사: 추정희 진만순 윤영옥
- 교육전도사: 송선태
- 시 무 장 모: 고재현 송영문 천은상
정송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 유 직 장 모: 원복희
- 은 회 장 모: 노남규
- 협 동 장 모: 이병화

담임목사
모 상 련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목포주안교회
Mokpoju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목포시 청호로159 (북항동)
TEL. 061-272-4908 FAX. 278-0693
남약예배당: 목포시 남약2로 52번길 남약크리닉A동 301
TEL. 061-287-0692

■ 요한계시록 1장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啓示”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어떻게 깨달았나요? 수십 년간 계시록을 사모하면서 심장이 터질 정도로 울부짖고 기도해서 계시록을 깨달았나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수월하게 깨닫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월하게 깨닫게 되었을지라도 이 계시록은 수월한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한 말씀 한 말씀 자체가 참인데 그 말씀 자체가 아닌 다른 인간의 사상으로 포장한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 일생동안 매일 철야기도를 했다한들, 또 5만 번 읽었다한들,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정통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계시록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시록을 듣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운위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날카롭고 엄청난 위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안 되며 운위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예언의 비밀을 특별히 은총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 : 계시록 본문은 김제임씨 번역본을 기준하였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에서 ‘계시’는 헬리어 원문으로 (아포칼립시스)로 기록되었습니다. 원문에 근거한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동일한 단어 (아포칼립시스)가 고전 1:7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이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번역되었고, 또 벧전 1:7 “너희 믿음의 시험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시록의 첫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계시록 1절 이후부터 22장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1절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 확인하 드러내듯이, 뚜껑을 열어 나타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나타나심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장한국 목사
주시광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연륜부흥회 부총재

그러나 계시록은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초대교회 때 AD 70년경에 이미 끝난 예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중요한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읽지 않고 해석한 헛된 주장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계시록에는 상징으로 표현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사건들을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더라.”(계9:17-18)

이는 종말의 7년 대 환란이 시작된 후 전 3년 반이 지난 후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김정일은 계속 핵으로 한반도를 위협할지라도 그에 의해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사람의 영에 들어가서 군대가 되고 황충이가 되더라(계 9:2)는 말씀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워지는 사건을 말씀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누가 상징으로나 예화로나 알레고리컬하게 풀어서 미혹해도 전혀 옳지 않게 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은 과거의 일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하여 약 2,000년 동안 역사의 수직적인 일들을 말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에 일어날 일·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계 2·3장의 일곱 교회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종말교회까지, 즉

역사적인 과거 100년경부터 2,000년까지의 흐름을 7단계로 구별해서 말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 1:1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의 종들”은 모든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종들을 가리켜 “그의 종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환란 날의 종들로서 계 6:11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 하신 환란 날에 순교할 종들을 가리킵니다. 또 계 7:3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은 환란이 시작해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이요 계 11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의 종들”입니다.

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한정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계, 또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사도 요

사명을 감당한 후에 100%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교의 신앙에 몰려선 자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계시록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신학이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종들”의 자격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금촛대 교회는 이러한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였고,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의 천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눅 1:26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네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일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대 이적사건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가브리엘을 요한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재림을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제로남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네가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단 9:23)



한에게 주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종들”은 우리의 원함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의 종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자에게 그의 이마에 인 쳐서 “그의 종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자기의 피와 살이 되어져 완전한 예언의 등불과 같은 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환란 날

고 하면서 예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다니엘 12장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보충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마포 입은 예수님이 강물 위에 서 계시면서 강둑 저편에 있는 사람을 강둑 이편으로 강 건너게 하시는데 그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순교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비밀을 가브리엘 천

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마리아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주의 재림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지도록 보냄 받은 “그의 천사”는 당연히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안에서 주의 초림이 이루어졌고, 또 주의 재림도 아버지의 소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보통은 계 1:1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서 끝냅니다. 우리는 본문 1절을 읽을 때 여기에서 끝맺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록되어진 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과 똑같이 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볼 수 있게 후차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1절에서 깨닫고 그다음 2절을 접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기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서 혹은 빼먹기도 하여 반절도 기록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절에서 사도요한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 장차 될 일을 보여주고 알게 한 모든 것을 막힘없이 소화하여 증거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사도요한과 같은 믿음의 수준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사도 중에 사도요한이 수석 사도입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자신이 받은 계시록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가 곧 기록된 계시록이며, 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 1:13의 일곱 금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활동 하시는 것을 사도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3장에서 예수님이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요한이 들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성령으로 요한의 영을 이끌어서 하늘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은 틀니바위처럼 아주 빈틈없이 조립되어져 있습니다. 또 모든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유다서까지의 내용이 계시록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성경전체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말씀하고 있어서 굉장히 오묘한 것인데 그것의 끝, 결론이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하나만 떼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계시록을 어떻게 요한이 증거했을까요? 여기에서 요한의 신앙차원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나 사람의 영혼이나 마귀, 귀신들의 영적인 영물들의 역사가 이 땅에서 있는데 이런 것을 분별하고 아는 것은 물론이고 이 우주 안이 아닌, 우주 밖의 하늘나라의 영계를 전부 알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 영계 이전의 세계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요 1:1에서 증거했습니다.

에녹부흥 사관학교

대표	사무국장	교무국장(교수)	사무간사
 박영민 목사	 김진우 목사	 김성일 목사	 김명세 사모

교수진
 김상열 교수  임대우 교수  박병로 교수  고현관 교수  박연씨 교수  한관수 교수  김성기 교수  박경서 교수  임윤관 교수  전미리 교수  김장수 교수

■ 광역인 목사 약력

- 동불교회 담임
- 에녹부흥사관학교·부흥사대 대표전수원장
- 지저스타임즈 인턴시장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세계주영영부흥사업협의회 9대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본사 사무국장
- 영감에녹들의 설립자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의 사무국장
- 영·정·에·녹·총·회·인·턴·노·회·소·속

http://kiea.onmam.com

중식 및 교재 무료 제공

☞ 시간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2시(학술원)

☞ 장소 :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 주소 :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송의1동 441-45

☞ 문의 : (사무국장)010-3499-2441, (교무국장)010-9610-8508

에·녹·총·회·신·학·원, 연·구·원, 학·술·원·생 수·시·모·집
수·업·일: 매·주·금··토·오·전 10:00부터~
“ 몸·찬·양(무·용, 국·악, 찬·양)매·주(목)오·전 10: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충현교회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흥사업협의회 총재)

사무장로 : 신오식, 정종국, 김홍령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 1.예배의 삶의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 2.온전한 실업조와 김사로 물들라.
-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여라.
-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가라.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4들어

“말씀에 아멘하여 다음 세대를 감동로 축복하시라”
(고후 1:18-20)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입니다.
막연히 좋은 미래가 오리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의 미래가 있고, 지상에서
믿을 지킬 때 미래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주일오전예배 :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 밤 9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주말~금요일)
유·초등부 : 오전 9시
중·고등부 : 오전 9시
청년부 : 오후 3시30분

창
야
오
니
는
길
《도시행복》
1 중산 → 화정 85-1 교당동 → 송정전철역
850 교당동 → 봉선역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좌석버스》
85 교당동 → 김포공항 800 내방동 → 신촌
917 가락동 → 917 역삼 → 생곡
(지하철역)

82 내방동 → 영등포 1900 본방산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거리)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성서수련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교단 및 노회 탈퇴공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 서울노회를
탈퇴합니다.

교역자 김바울, 정지은

2014년 8월 18일

교단 탈퇴 공고

한국독립교단 · 선교단체연합회를 2014년 7월
10일자로 탈퇴하여 공고합니다.

전태경 목사

CTS기독교TV 교회App 마스터 과정 개최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한 무료 세미나 과정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교회, 기독교단체, 선교사들이 APP을 직접 제작 및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 App 마스터 과정' (이하 '마스터 과정')을 매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마스터 과정에서는 CTS에서 제공하는 APP 솔루션을 활용하여, 필요한 콘텐츠를 참석자들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을 수료한 참석자라면 APP을 완성하여, 스마트폰 APP 마켓에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 App 담당자는 "익숙하지 않던 용어와 기능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고 교회로 돌아가서 App을 가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였으며, 교회 App을 직접 운영하는 목사님은 "중·장년층에게 친숙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관리에



대해 강의와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000여 교회의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본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CTS기독교TV 본사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참석가능하

고,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및 문의전화 : ctsapp.cts.tv, 02-6333-1179)

엘림 장애인 선교회

제25회 여름산상대부흥회 은혜롭게 마쳐...



엘림 장애인 선교회(대표: 김천기 목사)는 올해 25회째 세계 장애인을 위한 "여름 산상 대 부흥회"를 "세계 장애인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포천 한국중앙기독교원에서 은혜롭게 마쳤다.

사)엘림 장애인 선교회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고창수 목사(엘림교회)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을 위해 대규모로 이루어진 부흥회였기에 안전과 여러 손길들이 필요한데, 이를 없이 빛도 없이 이 성회를 섬기는 이들이 많았다. 여러 택시 선교회를 비롯하여, 개인

및 군부대 장병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매번 대 부흥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자원 봉사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성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스도 만들어 놀이, 미용, 이발 등으로 장애우들을 섬기는 시간을 갖는데 유용했다.

한국교회의 건전한 부흥사들과 목회자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하루 세 번 새벽, 낮, 저녁집회를 열고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임하고 영성회복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

이번 성회의 목적은 장애우들에

게 비전을 심어주는데 있었으며, 이를 위해 3일간 오후 2시부터 3명의 강사를 통해 비전특강을 가졌다. 특강에 나선 명의 강사는 동선교회 산하 기관인 21C위원들이다.

이사장 임순자 목사(연악비전선교회)는 환영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천국잔치입니다. 숨겨 마시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대표회장 김천기 목사(한동교회)는 "...장애인을 사랑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장애인을 보면 내 생명까지라도 주고 싶고, 돕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사무총장 고창수 목사도 지난날 사역을 회고하기를 "...선교회를 설립한지도 30년이 되었습니다. 여름산상 성회도 25회가 되었습니다.... 몸은 부자유스럽지만 마음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음을 매번 보았습니다. 성회기간 내내 쏟아지는 말씀으로 은혜 받은 여러분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뵈었습니다...."라고 전하며, 장애우들을 위한 섬김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엘림장애인 선교회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매년 초에 신년 성회를 하고, 정기적인 군부대 위문과 지부 심방을 통한 장애우들을 위한 모금 집회 및 장애인 영성 집회를 고창수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 소재 엘림교회에서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매년 말 장애인과 함께하는 송년 큰 잔치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인천지사 광영민 기자

양수리수양관 여름산상부흥성회 성료

'소원의 향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시편 107:30)을 주제로 양수리수양관 여름산상부흥성회가 지난 28-30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부흥성회에는 강남중앙침례교회(피영민 목사) 성도들과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성회를 찾았다. 피영민목사,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장경동 목사(중문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등이 강사로 나섰다.

양수리수양관 여름산상부흥성회는 '성령이 역사해야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모토 아래 사그라지는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을 다시금 타오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약해져 있기에 한국교회가 약해진 다"는 피영민 목사의 진단에 따라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다시한 번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성회다. 양수리수양관은 해마다 성회를 통해 기도의 응답이 하되하게 나타나 는 응답의 성산으로도 불린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지혜를 얻으며, 병을 치유받고 방언이 터지는 등 성령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다. 해결받지 못한 기도제목을 갖고 수양관을 찾은 성도들은 기도 후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 매년 다시 찾는 매니아가 되기도 한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식단을 개선하는 한편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곡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산책하기 좋

은 등산로를 정비하고 테니스코트를 완비하는 등 부대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도 양수리수양관의 인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2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많은 교회들의 수련회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어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하기조차 어렵다. 전국적으로 성회를 찾는 성도가 줄어든다는 시대에 양수리수양관의 아낌없는 투자와 홍보, 탁월한 강사 선정과 뜨거운 기도의 테마는 변함 없는 인기의 비결이 되고 있다.

작지만 아름다운 영광교회

매주 금요일 무료급식 큰 호응 얻어



인천 계양구 계산3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이광수 목사, 일명 불광수 목사)는 지난 7월 첫 주부터 매주 금요일 점심에 지역 주민들 중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첫 날은 25명 정도가 왔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 한 달 만에 100여명으로 늘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이다.

영광교회는 큰 교회라 아니다. 상가교회이고, 평일 날 봉사할 성도들도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봉사자는 본인과 남궁현수 목사 두 사람이다. 설교와 뒷정리는 이광수 목사, 남궁 목사는 무료로 주방봉사와 어르신들에게 레크레이션으로 기쁨을 준다.

베푸는 삶은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고, 작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관심'이다. 낮은 이들을 향한 관심, 이 목사는 38년전 우상승배자요 기독교인을

비웃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 저주와 죽음과 심판이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아 마치 폭발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사도와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전도자요, 목사로, 부흥사가 되었다.

그의 '불 광수'라는 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굶주린 영혼에 미친 사람이다. 주님과 떡과 복음을 주셨듯이, 이 목사는 전도와 무료급식을 통하여 이 땅의 낮은 자와 소외된 자, 불신자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귀한 사역자였다. 인천지사 광영민 기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 : 신 호 군

담임목사 이 이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 714-1426, 7236

기독교대한 하나님의교회 수원힐베루아농이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담임 임해숙 목사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T/F: 031)224-4947 영상전화: 070-7947-4798
H.P: 010-4611-3221(문자)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궤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를 누리리

사랑, 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담임목사 최현원 원장

부석/장기 요양원 정동진 생활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주일예배안내

주 일 오전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 벽 5시

담임 박용숙 목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홈페이지 : www.ezob.org 이메일 : usc2810@hanmail.net
전화 : 02- 414 - 1191 집 : 02-423-5154
담임목사 : 박용숙 목사 (010-3775-5154)

2014년 표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 덕 교 회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사무장로 : 송두현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전순자, 김경애,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담임 서명범 목사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궤완근 목사
(신명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오후: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윤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정직한 삶

성경: 잠언 10장 29절 찬송가 90장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곧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안전과 복이 보장되지만 어기는 자에게는 말씀이 곧 멸망의 신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제목: 의인의 땅

성경: 잠언 10장 30절 찬송가 347장

악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악인이 땅에 거주하도록 용납하였지만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지만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혜로운 입

성경: 잠언 10장 31절 찬송가 411장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마 12:34)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의 입에서는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혀를 버리고 지혜로운 의인의 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축복된 언어만 사용하십시오.

제목: 의인의 입술

성경: 잠언 10장 32절 찬송가 286장

우리는 악하고 패역한 입술,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입술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입술, 곧 호의적인 말, 선한 말, 너그럽고 관대한 말, 긍휼히 여기는 말, 위로와 격려의 말만 하는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주변에 기쁨을 불러오게 됩니다.

제목: 정직한 소득

성경: 잠언 11장 1절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것과 공평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과 속인수를 사용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정직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하였습니다.

제목: 겸손한 자의 지혜

성경: 잠언 11장 2절 찬송가 325장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마귀는 교만했기에 천사에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성도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어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목: 성실한 길

성경: 잠언 11장 3절 찬송가 516장

본문은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스스로를 인도하며 사특한 자는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본문의 '성실'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 복된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사특한 자, 배신자, 패역한 자가 되지 맙시다.

제목: 공의를 구하십시오

성경: 잠언 11장 4절 찬송가 539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주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입니다. 본문은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준다고 말합니다. 재물을 구하기 이전에 공의를 구하십시오. 재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목: 곧은 길

성경: 잠언 11장 5절 찬송가 531장

악한 자는 그 악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말과 행동은 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실패하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버리고 온전하고 의로운 길로만 가십시오. 거기에 평안과 형통이 있으며 참 복과 영생이 있습니다.

제목: 정직한 자

성경: 잠언 11장 6절 찬송가 408장

본문의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사할 때 평안과 생명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목: 의인의 소망

성경: 잠언 11장 7절 찬송가 246장

악인이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7절)는 것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쾌락들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며 소멸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인의 환난

성경: 잠언 11장 8절 찬송가 336장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을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십니다.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압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분의 자녀인 여러분을 털끝하나 상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목: 구원을 얻는 지식

성경: 잠언 11장 9절 찬송가 521장

악인의 입은 이웃을 망치게 하지만 의인은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망하게 하는 말을 삼가십시오. 의인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지식으로 이웃을 이롭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인의 형통

성경: 잠언 11장 10절 찬송가 428장

본문에서 의인의 형통을 성읍이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대중들이 선한 자들의 성공을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 양심상 의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동감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사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축하받는 형통을 우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칼럼 / 가슴 찡한 사랑

어느 병원장의 일기 중에

아침 8시 30분 쯤 되었을까? 유난히 바쁜 어느날 아침, 80대의 노인이 엄지 손가락 껌껌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하며 나를 다그쳤다. 나는 노신사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의자에 앉으시라고 권했다. 아직 다른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그를 돌보려면 한 시간은 족히 걸릴 것 같았다. 하지만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내가 직접 돌봐드리기로 마음을 바꿨다. 다행히 노신사의 상처는 잘 아물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노신사의 상처를 치료하며 대화를 나눴다.



간에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언짢아 하시나 보죠?”라고 물었다. 그러나 노신사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아뇨,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됐는걸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시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내를 알아본다요.”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다. 사랑의 참된 모습을 발견했다는 기쁨에, 내 팔뚝에서

는 소름이 돋았다.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인 것도 로맨틱한 것도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를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듬뿍 나누며 살아요 행복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

이상중 목사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모두 목적과 뜻이 있다

보잘것 없는 것부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까지

최고의 권력자에서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까지

인기를 한몸에 받는 사람부터 비천한 사람까지

그러나 소리 없이 풀 썩에 내렸다가 사라지는 이슬을 본다

아름다움과 영롱함과 그리고 깨끗함을 한몸에 지녔지만

해가뜨면 언제고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는 아름다움을 품은 녀석

매우 작기에 관심도 없고 찾는 이가 없기에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아주 낮은 곳에 임하는 이슬에게서

그분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과 스치는 듯 다가온 축복을 이슬에게서 깨닫는다

비록 짧은 순간에 사라져 버리지만

맑고 투명한 모습을 보며 나도 그분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다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 및 제5기 부흥사연수

■ 주 제 : 일어나 빛을 발하라



곽영민 목사



이재갑 목사



강문종 목사



곽동식 목사



이철호 목사



이재원 목사



정기남 목사



하종우 목사



성창경 목사



정기환 목사



박길영 목사



주은총 목사



전진성 목사



오세승 목사



임요한 목사



전미리 목사



박종만 목사

예능국장: 선명숙 목사

실무회장: 한점실 목사, 배정희 목사, 최건숙 목사, 박연자 목사

공동회장: 이춘우 목사, 최점미 목사, 심기석 목사, 이운선 목사, 김혜영 목사, 윤광석 목사, 이요한 목사, 조형자 목사, 전하세 목사, 김미양 목사, 박수영 목사, 김부경 목사

제9차 제주부협 정기총회 및 제5기 부흥사연수를 개최한다.

• 일 시 : 2014년 8월 25-27일(수)까지

• 장 소 :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439~42(내리교회)

• 안 내 : 담임 김철수 목사(010-9866-9408)

• 준비물 : 성경찬송,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침구

• 회 비 : 수련회 5만원, 연수비(대상자만) 5만원 추가
(숙식, 교재비 포함)

• 문 의 : 사무총장 : 주은총 목사(010-6327-0191),

사무차장 : 오세승 목사(010-7619-3927).

• 후 원 :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경찰기독일보(경찰청)

• 가입문의 : 부흥사의 사명을 감당하실 동역자를 환영합니다.

❖ 인물탐방

윤경식 교정본부장 “희망주는 교정행정 약속”



윤경식 본부장은 지난달 제5대 교정본부장에 취임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25년간의 교정 현장 경험을 살려 수형자 교정교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책임 있는 교정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 교정행정을 대표하는 교정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수형자 교정교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의 교정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수용자, 직원,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정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행복, 희망교정'이 교정본부의 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본부장님 취임 이후 이러한 교정의 비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향후 어떤 교정행정을 펼쳐 나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정본부는 이번 정부 출범과 함

께 '국민행복, 희망교정'을 비전으로 세우고 그 아래 "따뜻하고 희망주는 교정, 근거에 기초하는 교정, 신뢰받는 교정, 자부심이 느껴지는 교정"을 4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 기초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더욱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수형자의 인생변화를 유도하는 교정프로그램과 현장중심의 교정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을 통해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직업훈련 및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교정위원 등 교정참여인사, 수형자, 일반 국민 등의 소리를 귀로 듣고,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여 살아 숨 쉬는 교정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교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정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교정행정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 교정행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행정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에 다소 불리한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우리 교정본부는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형자의 재범방지라는 교정행정의 목적은 우리

교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정본부는 교정행정홍보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FEVER로 정하였는데 피버의 의미처럼 홍보를 통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미있는 홍보인 FUN, 역점적 홍보인 EMPHASIS, 다양한 홍보인 VARIOUS, 쉬운 홍보인 EASY, 정기적 홍보인 REGULAR를 통해 교정행정을 적극적으로 알려가겠습니다. 이러한 홍보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KBS 1TV에서는 김천소년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청소년 기획 '세상끝의 집'이 6부작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 교정본부에서 제작하여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교화라디오방송을 일반 국민들이 청취하게 하여 보다 더 교정에 관심을 가지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교도소 수용자 합창 경연대회를 일반 합창단과 같이 하여 국민들과 음악을 통해 친밀하게 하고, 교도소에서 문화 활동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통해 교도소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는 것은 어떠한지요.

▶ 교정본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제작하는 교화라디오방송은 수용자와 가족 그리고 연예인 등 게스트가 참여하여 만드는 수용자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청취자를 수용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화라디오방송은 매일 녹음하여 "국민 누구나 청취하실 수 있도록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방송 참여를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용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국민들과 더욱 친밀해짐으로써 교정기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의『하모니 합창단』이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의『드림합창단』또한 드림콘서트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의 문화적 공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교정본부장님들께서 정기적으로 전국의 교정위원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가 행사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실제로 본부장님과 교정위원들 간에 소통의 기회가 다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교정위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교정본부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교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교정행정발전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교정위원간담회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연간 12회 정도 시행하는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는 행사형식으로, 2부는 만찬을 하면서 부담없이 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소통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위원님들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기관 방문 때라든지, 교정본부 홈페이지 본부장과의 대화방을 통해서든지 언제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귀담아 듣고 교정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정행정의 목적은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년 '수형자교정교화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형자 인생변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체감하기 어려운데요. 본부장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 교정본부에서는 재범률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부터 여주교도소 등 5개 기관에서 수형자 내면의 인생변화를 위한 집중인성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형이 확정된 모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15시간의 인성교육을



100~300시간의 집중인성교육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범률 감소는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사회복귀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출소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전환 역시 동반되어야 가능한 복합적 과제입니다. 아직 재범률 감소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이른 점이 있지만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머지 않아 재범률 감소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

▷ 현재 교정본부에서 교정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교정위원 전문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과정에서 교정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데요, 아직은 이 자격증의 활용이 다소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정상담사들이 교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지금까지「교정위원 전문화 기본교육」과정을 통해 총 1,172명의 교정위원과 교정참여인사가 한국사범교육원이 발급한「교화상담사」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교정본부에서는 모든 교정위원이 수형자와 1:1 멘토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대면적 교화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교정위원의 교화활동 참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수형자

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 어느 나라든 인권 수준을 가늠하고자 할 때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어찌 지내는지 살펴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교정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소극적 인권 보장의 수준을 넘어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여가는 적극적인 인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정본부는 이러한 교정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 격리를 뛰어넘는 이러한 교정의 시도는 국민의 여러분의 다양한 참여와 격려, 지지와 협력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수형자는 범죄의 책임을 다하는 순간,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부디, 그들이 선택하고 반듯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5대 교정본부장으로 취임한 윤경식 본부장과의 인터뷰였으며 앞으로도 교정본부와 교정 행정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포항에서 이기학 기자



최고 품질의 기능성 대나무 명품 마루! 헤스코 G-마루!



→ 특히 및 시험성적서

건강을 생각한 과학마루...헤스코 G-마루는 과학적 환경기술로 생산되는 대나무 원목마루의 명품브랜드입니다.



특수한 삼투기술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의 결합

▶ 환경성: 천연소재로 천식, 피부병, 감기 등을 유발시키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환경호르몬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 과학마루!

▶ 내구성: 특허기술로 생산된 헤스코 G-마루는 마루원목에 함유된 수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휘거나 뒤틀림의 현상이 없고, 방충 및 항균작용이 뛰어나다.

▶ 안전성: 불이 잘 붙지 않는 천연방염재를 원목에 함유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여 화재시 유독가스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마루입니다.

▶ 경제성: 여름에는 습도가 적어 끈적임이 없고 시원하며, 겨울에는 열전도율이 높고 보온성이 뛰어나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 기능성: 대나무에 함유된 음이온과 나노기술의 융합으로 대나무 원목에 천연음이온을 함습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특허기술로 천연기능성재료를 삼투시켜 인체에 가장 이로운 5~20마이크로미터의 원적외선을 선택적으로 방사,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를 원활히 도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과학적 환경마루입니다.

《온돌용》

《상업용》

사용범위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학교, 유치원, 요양원, 호텔, 체육관, 사무실 등

상업문의 : (주)헤스코 ☎1577-0671

E-mail : hesko@naver.com www.hesco.co.kr

예복교회



One Way, Jesus ;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8월 10일 주일 저녁 7시 서 울시청 앞 광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 고, 비웃을 입은 청소년들이 잔디 광장 가득히 메우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비가 내렸지만 청소년들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세월호, 그리고 윤일병 폭행 치사 사건등의 영상 화면을 보여준 후에 메시지를 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새로운 희망은 오 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찬 양하는 10대들의 합창과 찬양이 시

청 앞 광장 가득히 울리고 있다. 특 히나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와 실종 자 10명이 아직 있고, 마지막 한사 랑까지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청 앞 현수막을 마주보고 있는 절박한 시대적인 현실에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라고 찬양하였다.

한국교회가 성장의 동력을 잃어 버렸다고 하는 현실, 입시와 취업 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허덕이 면서 다음 세대의 영적인 위기를 말하는 형편에서 복음의 능력과 예 배와 기도를 통한 회복을 라이즈업

2014 라이즈업 코리아 810 대회가 우중에도 열려

코리아 운동이 지향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5:30-7:00까지 라이즈업 청소년 축제를 가졌고, 7시부터 라이즈업 코리아 대회를 개최하였다. 라이즈업 워십 밴드의 인도 하에 찬양을 한 후에 이동현 목사 가 “삶의 고통 관계의 희망”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다. 대구 지하철, 세월호, 윤일병 폭행살해 사건의 영상을 보여준 후에 이 목 사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두 아들의 비유를 보자. 작은 아 들의 요구를 책임지고 말려야 함에 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누어준다. 마 침내 허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 켜 아이들이 돌아온다. 내가 왜 아버 지를 떠났는가를 반성하고 돌아온 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 다. 아버지는 무엇을 기대했는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주세요. 이것은 작은 아들 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둘째 아들이 성숙하기까지 기다리면서 재산을 달라고 했을때 준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개입하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세 도 불구하고 오하려 나누어준다. 그리스 도인은 이 땅의 운명에 책임이 있 다.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 도록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성도 들이 이기적으로 변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한다. 거짓 된 악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 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기 력이 있다. 기도하고 통회하면서

이땅의 고통을 감싸는 것이 성도이 다. 예수님을 못박는 자리에서 저 들의 죄를 용서해주시기를 구하신 것 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죄를 회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엄청난 하나 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이웃의 아 품에 귀 담은 우리의 죄이다. 작은 자를 위해 산다. 하나님 자신이 희 생하심으로 구원이 왔다. 이것으로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이웃을 위 해. 과거 1%의 성도들이 33인중에 16인의 삼일독립운동 대표가 되었 다. 불의에 대해 항거하는 열망이 있는가? 살려달려는 마음. 공황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위 로하시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우 리가 백성들의 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나아갈수 있는가? 자기 십 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인가?

연약한 자들을 보라. 이웃이 누

구인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 는가? 나도 연약한 세상을 위해 느 헤미야처럼 통곡하는 마음을 주실 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치유 하는 능력을 주신다. 나의 찢어진 마음이다. 세상의 연약과 이웃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자들이 복이 있 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십 자가를 지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가?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세상을 공황히 여기도록 기도하자. 구원해 주소서. 세상의 빛되게 하소서”

설교 후에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 를 하였다. 인기 가수 그룹인 울랄 라 세션이 나와서 가스펠과 자신의 노래를 부르면서 한층 분위기를 돌 우어 주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면 서 시청 앞 잔디 광장에 모인 그들 을 뜨겁게 외쳤다.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피종진 목사 9월 국내·외 성회 일정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8-1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1(월)~3(수)	공주 한성행복교회(홍사라 목사) ☎ 010-5458-6040
8(월) 오후	의정부 신희암기도원(원장 고화순 목사) ☎ 010-6223-0612
11(목) 오전	(제)세계복음화협의회 MT(장소: 대부도세종중앙교회)
14(주) 오후	광주 외국인선교회(회장 노인자 목사) 외국인부흥성회 ☎ 010-5418-3537
15(월) 오전	광주 송정우리교회(노인자 목사) ☎ 070-8819-3353
15(월)~17(수)	광주 우리들교회(박드보라 목사) ☎ 010-5744-7775
18(목) 오후	한국전도총연합회(원장 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19(금) 철야	양주 예수능교회(류찬규 목사) ☎ 010-4572-4572
22(월) 오전	민족복음화부흥사연수원(원장 우광순 목사) ☎ 010-3900-8240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2(월) 오후	부천 한국기독교목회자연수원(원장 이재범 목사) ☎(032)668-3191
22(월)~24(수)	청주 감람산기도원(조복순 목사) ☎ 010-9235-7123
26(금) 오후	수원 주바라기부흥사연수교육원(원장 손연순 목사) ☎ 010-9416-7800
28(주)~30(화)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041)531-7216
29(월) 오후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원장 이 서 목사) ☎(02)520-0801

똑같이 다함께 하는 문화나눔의 축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 100배 즐기기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최공열)는 장애인 문화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 다린다. 모든 역사에 개입하면 조 작자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 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린 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를 위해 서 이땅에 친히 내려오셨다. 온전 한 정의를 행하신다. 죄에 대한 정 의를 이루신다. 그리고 사랑으로 마음 문을 두드리신대제2:20] 강제 하지 않고 마음을 열기를 바라신 다. 우리의 좌절을 바라보시고 주 의 음성으로 마음 문을 두드리신 다. 그래서 마음 문을 우리 스스로 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기다리지만 하시는가?

역에서 4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각 프로그램 별로 사전에 예술에 관한 국내 및 국제간의 교류를 주도하여 장애인 문화 발 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국제장애 인문화엑스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2014 인천장애인아 시아게임'의 개최지인 인천지역 에서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체험 하는 희망과 감동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9개 지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게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장애인문화 및 체육 증진에 일조하 고자 하였다.

또한 인천문화탐방으로 장애인 을 위한 문화관광 시설을 살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인천, 국 내외 장애인들이 찾아가는 인천 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행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사업으로 문화 체육 활동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다함께 문화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실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

영광교회, 전국 남·여 교역자 영성 세미나

주님의 눈물

- 낮추어라 낮추어라 심령을 낮추어라
니는 천한 말구유에 태어났건만
너희는 지금 어디에 앓으려고 분주하느냐
- 낮추어라 낮추어라 심령을 낮추어라
니는 머리 돌 곳 없이 이 땅에서 지냈건만
너희는 지금 어디에서 살려고 땀흘리느냐
- 낮추어라 낮추어라 심령을 낮추어라
니는 고난의 가시관을 쓰고 갔건만
너희는 지금 무엇을 쓰려고 기도하느냐
- 낮추어라 낮추어라 심령을 낮추어라
니는 열시 천대 온갖 핍박 다 받았건만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받으려고 계획하느냐

조강수 목사



강사 박 형 용 목사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전)
·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전)
· 웨신 대학원대학교 총장(현)



강사 조 강 수 목사

· 영광교회 담임목사
· 웨신총회 부총회장
· CBS, CTS TV 강사

- 일 시 : 2014년 9월 4일(목) 오전 11시 ~ 오후 3시
- 장 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TEL (032) 575-1654 FAX (032) 581-3723
- 주 소 : 인천시 서구 장고개로 366(구)가좌4동 4-24
- 교회홈페이지 : <http://www.youngkwang.net>



후원 : 웨신총회. 웨신대학원대학교. CBS TV. CTS TV